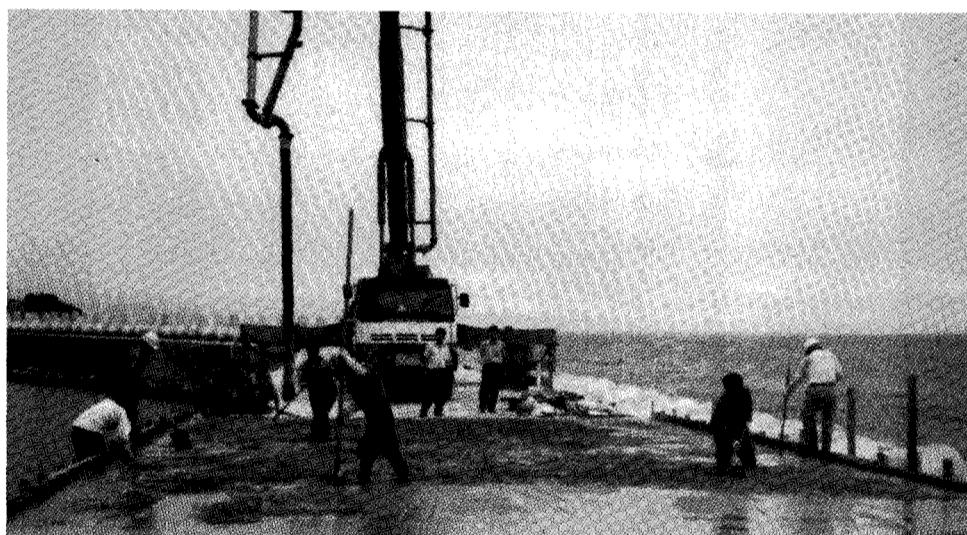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번지 인의빌딩 13층 T. (02)3673-2851~4/3673-2856/568-6651 F. (02)3673-2857 www.fipa.or.kr 발행처/편집인 裴平岩·인쇄인 金在克 ISSN 1227-705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

올해, 어항공사 64개항 74건 순조

10월 현재, 78.9%의 공정률, 11건 이미 준공



올해 어항시설공사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가어항 건설 공사 사업은 1천538억여원을 투입, 부산 대변항 등 64개항 74건의 공사를 실시하고 관광복합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10월말 현재 공정은 78.9%의 진척을 보여 계획공정 76.7%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10월말 현재 울도항 비롯 풍남항, 지세포항, 매물도항, 광암항 어청도항, 사동항, 축산항 건설공사와 구산항 물양장, 양포항 보강공사, 안흥항 준설공사 등 11건이 준공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제15호 태풍

‘매기’의 진로권에 위치한 남양항(2차)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복구로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여 당초 계획

76.2%를 상회해年内에 준공이 가능하고 다른 현장에서도 큰 문제 없이 공事が 진행되고 있어 계획한 물량에 대한年内 준공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변항, 초도항, 강구항 건설공사와 신수항 보강, 모슬포 물양장 축조 및 기타 공사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일부 이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 관광복합기반조성 사업은 용역이 끝나는데로 어촌어항복합공간 1개소를 선정, 2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사업에 대해서도 주요 공사는 1월중, 핵심공사는 1·4분기내 모두 발주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항의 관광화 어촌의 공원화

「어촌어항법 제정안」 국회 심의 중

‘어촌어항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 어항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추진 중인 ‘어촌어항법 제정안’은 어촌발전 기본 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다기능 종합 어항을 개발하는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어촌어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한국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점검 업무 이양과 어촌분야 업무영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